정조의 華城 경영과 문헌 배포

김 문식*

1. 머리말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조선의 문예부흥기'라 불리는 18세기 후반의 정계와 학계를 주도했던 君師, 즉 학자군주였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흉치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정조는 11세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후 왕세손이자 동궁으로 있던 14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이에 따라 1776년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정조의 학문은 이미 당대의 학자들을 이끌만한 수준이었고, 이후 24년 3개월간 국왕으로 있으면서 조선을 찬란한 문화국가로 만들었다.

학자군주로서 정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조대에 편찬된 문헌이다. 실제로 정조대에 편찬된 문헌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는『詳書標記』를 보면 정조대에는 150여 중, 4천 권에 이르는 문헌이 편찬된 것으로 나타난다.1) 그러나 이는 정조가 직접 편찬을 주관한 왕서와 명가가 각기 및 교육문신을 비롯한 국왕 측근의 신료들이 편찬을 분담한 봉사문서를 만든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이나 민간에서 개인들이 편찬한 서적을 고려한다면 정조대에는 훨씬 많은 문헌들이 편찬된 장면이었다. 정조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반드시 학문 연구를 거치도록 했고, 전란으로 외에 있었던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결과를 문헌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문헌들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정조대의 문헌은 주로 규정각의 출판 기능을 통해 인쇄되었다. 정조는 서적의 인쇄를 위해 여러 종류의 활자를 주로 규정각에 비치해 두고, 책의 내용에 따라 활자를 골라 인쇄했다. 또한 정조는 책의 속표지에 다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책의 내용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진 도장을 찍어 책 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조대의 문헌은 다시 규정각의 배포 기능을 통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정조대에 규정각에서 간행된 문헌은 일정 분량이 국왕에게 올려지는 것과 함께 규정각의 서고, 史庫, 應文관, 敬文관 등 기본적인 배포처가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서적

---

* 필자: 규정각 학예연구사
1) 정조대에 편찬된 문헌 목록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0,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pp.29~40.
이 배포될 경우에는 4도의 守府, 8도의 監營, 전국의 서원과 舊營로 배포되기도 했다. 그
런데 華城은 문헌 배포처 가운데 특별한 대우를 받아 상당히 많은 서적이 배포된 사실이 주
목된다.

정조대의 문헌이 화성에 배포된 것은 화성의 축성이 시작한 1794년에 시작하여 정조가
사망한 이후까지 계속된다. 정조는 1789년 生父 思悼世子의 묘소를 花山으로 옮긴 이후 매
년 화성을 방문했고, 화성을 농업과 산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농의 도시로 커우기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정조가 규장각에서 간행된 문헌을 화성에 집중적으로 배포한
것은 신도시 화성을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 글은 화성에 배포된 정조대 문헌의 내역과 그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조대에 화성이 성장하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문헌이 배포된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한 배경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화성에 배포된 문헌과 배포 부수, 문헌이 배포된
장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문헌 배포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정조대의 문헌이 배포된 상황에 대해서는『日省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고
에서는『일성록』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2. 華城 경영의 추이

정조가 화성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1789년 10월 자신의 생부 思悼世子의
묘소를 花山으로 옮기면서부터이다. 원래 사도세자의 묘소는 그가 사망한 직후인 1762년 7
월에 楊州 拜壇山에 垂思墓란 이름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2) 정조는 왕위에 즉위한 직후 思
悼世子의 墓號를 옮겨 ‘莊獻世子’라 하고 그 사당인 景廟宮을 창경궁 이외에 건설하면서,
수온묘의 이름을 ‘永祐園’으로 바꾸었다. 3) 사도세자의 묘소를 ‘墓’에서 ‘園’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 조치였다. 이후 정조는 영우원을 꾸준히 방문하여 참배했다. 4) 그러나 정조는 영
우원을 방문하면서 이곳의 지세가 좋지 못해 묘소의 일부가 헐어지거나 수리가 차는 것을
늘 마음의 곁으로 생각했다. 1789년 7월 錦城尉 朴明源(1725~1790)의 상소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移葬을 결정했다. 5) 이장 장소는 천하의 명당지라는 花山 아래 水原府 儀治가

2)『英祖實錄』권100, 英祖 38년 7월 癸未(23일).
3)『正祖實錄』권1, 正祖 貞順이 년 3월 辛卯(20일).
4)정조는 국왕이 된 1777년부터 永祐園을 이전하기 직전인 1789년 10월까지 총 18번을 방문했다. 정조
의 陸駕日語에 대해서는 金文純, 1997,『18세기 후반 正祖 陸駕의 意義』『韓國學報』88, pp.39~43.
5)『正祖實錄』권27, 正祖 13년 7월 乙未(11일), 『弘濟全書』권57, 「蓮園事資」『定園』
朴明源은 1) 永祐園의 壇가가 알라죽을 2) 靑龍의 능성이 흔들 3) 뒤를 받치는 水勢가 심하게 부딪히
는 것 4) 뒤쪽 龍館의 石築이 인공으로 조성된 것을 들었고, 곳곳에 벼이 또아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명원은 영조의 3女인 和平翁主에게 장사를 들어 錦城尉가
있는 곳이었으며, 이장과 동시에 그 이름을 '봉隆園'으로 바꾸었다. 6) 정조의 현령원 이장은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도세자의 복권 조치가 한 고비를 넘겼음을 의미했다.

수원부의 이전이 시작된 것은 현령원의 자리로 화산 아래로 할 것을 결정한 1789년 7월이었다. 새로 현령원이 들어서자 제공은 바로 수원부의 이전이 있어 있던 곳이었기에 이는 부득이하고도 시급한 일이었다. 정조는 수원부의 이전으로 10만냥의 돈을 내놓았고, 새로운 용지를 이전할 자리에 맞달아 있던 서울의 두면을 수원부로 가혹시켰다. 또한 수원부의 이전에 따른 행정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원의 최수를 석방하고 이전 기간 중에는 최수를 감감하지 않도록 하라는 특혜를 주었다. 7)

수원부는 화산 기슭에서 황서봉 아래로 옮기는 신도시 건설 사업은 판야 건물을 비롯하여 농지, 정주, 도로, 교항, 봉우리 등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과 민가를 이전하는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또한 그 중앙에는 576건에 이르는 조선 최대의 행궁을 건설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해 9월에 농지의 심성을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790년 2월에 정조는 수원부의 동계획 건물을 '봉산'에 내실을 '봉내방', 정주, 봉주 '봉중궁'이라 이름짓고 그 왕관 글씨를 직접 수호로 썼으며, 5월에는 '봉중궁, 봉남산, 봉서문 동 총 340건의 건물을 완성되었다. 8)

다음의 9)의 대는 화성행궁의 건물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수원의 행궁 및 판야 건물은 1790년에서 1790년 사이에 기본 건물이 완공되었고, 1794년 화성행궁이 시작된 이후 중축 또는 신축의 과정을 밝혀볼 수 있다.

정조가 화성에 유수영을 설치한 이유는 이곳이 '환경의 요지'이었다는 '봉隆園'을 수호해야 되었으나, 정조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사람이었다. 6) 정조는 1789년 '봉隆園'을 고모부에 매각한 일제의 사항은 '연명사실'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 책의 본문은 '봉隆園'의 정의, 도착, 회복, 태사, 이전으로 구분되어 있다.

7)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乙亥(15일).
8) '서해', 권28, 정조 13년 9월 丙申(13일); 권29, 정조 14년 2월 庚申(9일); 권30, 정조 14년 5월 丁亥(7일).
9) '서해', 권37, 정조 17년 1월 丙午(12일).
10) '서해', 정조 17년 1월 乙未(12일).

"고모부, 서화원, 일제기록서, 행정중첩도시 및 서화원의 지속, 식수부의 통솔."
<table>
<thead>
<tr>
<th>건축</th>
<th>건물명</th>
<th>1차 건축</th>
<th>2차 건축</th>
<th>총규모 (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건물</td>
<td>길</td>
<td>연대</td>
<td>건물</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동</td>
</tr>
<tr>
<td>行宮</td>
<td></td>
<td></td>
<td></td>
<td>동</td>
</tr>
<tr>
<td></td>
<td>奉鰲堂</td>
<td></td>
<td></td>
<td>동</td>
</tr>
<tr>
<td></td>
<td>正堂</td>
<td>21</td>
<td>1789</td>
<td>北関道</td>
</tr>
<tr>
<td></td>
<td>中陽門外行閣</td>
<td>43</td>
<td></td>
<td>동</td>
</tr>
<tr>
<td></td>
<td>長樂堂</td>
<td></td>
<td></td>
<td>正堂</td>
</tr>
<tr>
<td></td>
<td>南闕道</td>
<td>12</td>
<td></td>
<td>동</td>
</tr>
<tr>
<td></td>
<td>景龍館</td>
<td></td>
<td></td>
<td>正堂</td>
</tr>
<tr>
<td></td>
<td>北闕道</td>
<td>6</td>
<td></td>
<td>동</td>
</tr>
<tr>
<td></td>
<td>福內堂</td>
<td></td>
<td>18</td>
<td>1789</td>
</tr>
<tr>
<td></td>
<td>北外行閣</td>
<td>29</td>
<td></td>
<td>동</td>
</tr>
<tr>
<td></td>
<td>韋輊宅</td>
<td></td>
<td>8</td>
<td>1790</td>
</tr>
<tr>
<td></td>
<td>正堂</td>
<td>20</td>
<td></td>
<td>동</td>
</tr>
<tr>
<td></td>
<td>附舍門</td>
<td>20</td>
<td></td>
<td>동</td>
</tr>
<tr>
<td></td>
<td>洛南軒</td>
<td></td>
<td>5</td>
<td>1789</td>
</tr>
<tr>
<td></td>
<td>藏春閣</td>
<td>7</td>
<td></td>
<td>동</td>
</tr>
<tr>
<td></td>
<td>得中亭</td>
<td></td>
<td>13</td>
<td>7</td>
</tr>
<tr>
<td></td>
<td>附舍</td>
<td>7</td>
<td></td>
<td>동</td>
</tr>
<tr>
<td></td>
<td>新豐樓</td>
<td></td>
<td>6</td>
<td>1789</td>
</tr>
<tr>
<td></td>
<td>樓門</td>
<td>6</td>
<td></td>
<td>동</td>
</tr>
<tr>
<td>公署</td>
<td></td>
<td></td>
<td></td>
<td>동</td>
</tr>
<tr>
<td></td>
<td>南北軍營</td>
<td></td>
<td>24</td>
<td>1789</td>
</tr>
<tr>
<td></td>
<td>軍營</td>
<td>24</td>
<td></td>
<td>동</td>
</tr>
<tr>
<td></td>
<td>外整理所</td>
<td></td>
<td></td>
<td>正堂</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附舍</td>
</tr>
<tr>
<td></td>
<td>神將廳</td>
<td></td>
<td>14.5</td>
<td>1789</td>
</tr>
<tr>
<td></td>
<td>廳, 翼廊</td>
<td></td>
<td></td>
<td>동</td>
</tr>
<tr>
<td></td>
<td>書吏廳</td>
<td></td>
<td></td>
<td>正堂</td>
</tr>
<tr>
<td></td>
<td>執事廳</td>
<td></td>
<td></td>
<td>行閣</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동</td>
</tr>
</tbody>
</table>
일년 300일을 바갈없이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오직 현령을 참배하여 예를 헌하 는 하무에 있었다. 참배를 마치고 가마를 돌릴 때에는 수원부의 경계에 있는 고개 위에 면취 서서 멀리 바라보며 주저하느라 행렬이 지체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문득 수령을 앞에 두려 놓고 정성을 다해 현령을 수호하라는 뜻을 신인 당부했다.

그러나 그의 작전은 한 고율의 원이요, 그 풍계를 묻으면 3품직 자리이다. 적임자를 얻어서 그 작전을 맡기며 작전에 있어 상관이 없었지만, 조정의 조치란 지위가 높지 않으면 위임이 없는 법이다. 전망에 관한 것은 우선 그만두더라도 내 행궁의 여러 가지 사무를 정리하는 임무를 어찌 3품의 수령에게 맡겨둘 수 있었겠는가?

또한 정조는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함과 동시에 壯勇衛의 내외병制를 확립하고 壯勇外衛의 본부를 화성에 두었다. 장용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785년(정조 9) 壯勇衛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조는 장용위 시절부터 국왕의 호위를 장용영이 전담하게 하고, 壯勇大將은 국왕의 특별히 의해 차출하였으며, 다른 군영의 대장들도 장용영의 관직을 거친 이후에 임용될 수 있도록 유효했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들은 좌대·威臣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던 군영에 대해 적신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13)

그런데 정조는 1793년에 화성을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이곳에 장용외영이란 독립 군영을 설치함으로서 화성수주의 壯勇外使를 겸하도록 하여 화성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정조는 1795년 이후 화성의 방어체제를 協守軍 체제로 하면서 龍仁·安山·振威·始興·果川 등 인근 지역의 병력을 화성으로 이동시켰다. 정조가 화성이 본부를 둔 장용외영의 병력을 이처럼 구준히 증가시킨 것은 행궁과 성곽을 방어하고 국왕의 호위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완창적인 의미와 함께 국왕이 軍權을 장악하여 중앙 군영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실제로 이전까지 경기지역의 방어는 後宮(南陽, 長興, 水原)과 守禦廳(廣州, 竹山, 陽州)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화성에 장용외영이 설치됨으로써 그 거점을 화성으 로 옮겨지게 되었다. 14)

1794년에 정조는 화성 성곽의 건설을 시작했다. 국왕의 생부 묘소가 있고 장용외영이란 독립 군영이 주둔하는 화성에 성곽을 건설하리라는 예상은 1793년에 수원의 이름을 ‘華城’으로 바꿀 때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수원부 옥치를 화성이 건설된 자리로 옮겨 옥지와 뿌야 한다는 구상은 柳馨遠이 『礫溪隨録』에서 제안한 바 있었고, 현령원이 조성된 직후인 1790년 6월에는 副司直 姜寿가 새 옥치에 축성을 하고 금지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5) 화성 축성은 1793년 5월 수원유수 체제공이 축성 방안을 결정하면
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794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16)

화성 축성 공사는 2년 10개월이 지난 1796년 10월에 끝났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연 70여만명을 허락하고 총 비용이 80만냥에 이르는 대공사였다. 그러지만 예상초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공사가 이처럼 일찍 끝났다는 것은 국왕 정조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보좌하는 관리들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로, 조선 왕조의 충실한 국력이 다가왔기 때문이 다. 또한 축성 비용으로 국립화과 관료들의 해외주사를 사용한 것은 중앙 관영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조의 구상과 관련이 있는 조치였다. 17)

1795년 2월,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혜를 모시고 7박 8일간 화성을 방문했으며, 화강을 갖춘 혜경궁 홍혜의 화강전차를 화성정궁에서 기행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화성에서의 행사는 화강전차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화강전차와 함께 정조는 화성 지역 노인들에 양로면을 베풀었고, 화성 및 인근에 거주하는 인재들에게 文·武科별 교를 허щит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산물도 구해주었다. 또한 정조는 서장대에 올라 장유령 군대의 군사 훈련을 지휘했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화성의 축성 현장을 직접 들려보았다. 이 해의 행사는 정조가 재위 20년간 이룩했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국왕의 친위세력과 백성들의 충성을 점검시켜 정자 화성을 중심으로 휘어가려는 개혁정치의 구상을 휘어 보인 정치적 행사를 18) 이 후에도 정조는 화성을 상공립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정조는 1794년부터 화성에 상설시장인 8개 사정과 남북 2포에서 설치하고, 안성·구례지역을 유치하도록, 전국의 상공립과 상공립자를 유치하여 이 지역의 상공립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797년 1월에 내려진『華城富豪絨製製作』은 화성에 이주하는富豪들에게 허가 만들기, 하위의 무역과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화성을 대중회로 키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이 방안은 결국 신하들의 적절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지만 화성의 육성을 위해 고심했던 정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19)

정조는 화성지역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농업진흥책을 했다. 정조는 수리의 목표에万石渠(1795), 반바이라(1798), 봉제(1799)과 같은 대규모 제언을 축조하였고, 여기서 나온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大有屯(북두), 種河屯(서두)과 같은 도장을 경영했다. 20) 농업은 상공립과 함께 화성의 주요한 산업기반이었으므로, 농업 시설의 확장은 통해 화성을 자축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들이고, 또한 정조는 1795년의 행사를 위해 노량

15) 『正祖實錄』 권30, 정조 14년 6월 11일.
17) 『正祖實錄』 권38, 정조 17년 12월 乙丑(6일).
20) 崔洪奎, 1999,『正祖代 水原地方의 水稲政策과 농업진흥』『正祖思想研究』 2, pp.33～44.
3. 華城에 배포된 문헌

규장각에서 편찬된 문헌은 그 배포처가 잠재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먼저 국왕에게 올리는 것에 주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궁중에 보관하는 본과 국왕이 하사하는 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규장각의 서고와 5곳의 기록(춘추관, 정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적상산 사고, 태백산 사고)에 배포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정부기록보존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반드시 일정한 분량의 문헌을 보내어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규장각 서고는 조선본만 전문적으로 소장한 곳으로 간행본 가운데 가장 많은 문헌을 보관했다.

다음으로 홍문관, 외규장각, 세자시강원, 성균관과 같이 교육이나 학문과 관련된 기관이 있었고, 개인으로는 고위 문인과 전반작업에 참여한 실무 관리들에게 배포되었다. 실무 관리는 글자의 교정이나 인쇄를 감독했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장각 관과 조성문, 검서관에 이에 해당하며, 성균관 문인이나 지방의 문인이 문헌과 필사와 교정 작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들 역시 모두 배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조대 문헌의 배포처에 지방도시로는 특별하게 화재가 대면 포함되어 있었다. 정조 말년에 간행된 문헌은 반드시 일정한 부수가 화재에 배포되었고, 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헌은 특별히 많은 부수가 배포되었다. 이하에서 폐지는 화재에 배포된 문헌의 내용과 배포 부수를 조사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시한 문헌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순서는 해당 문헌이 간행된 연대순을 따랐다.

1)『朱書百選』(1794. 12)

『주서백선』은 정조가 주자의 편지글에서 간요한 것 100편을 뽑고 李滉秀, 韓曉裕, 崔光泰와 같은 학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인명, 지명, 訓話, 出處 등에 관한 주석을 달 것이다. 여기에 실린 주자의 편지는 全文이 아니라 혼히 있는 인사말이나 격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요약문이다. 세손 시절부터 주자학을 중시했던 정조는 당시 학계에 고증학이나 페판체 문장이 생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朱子書 選본들을 간행하여 보급했는데『주
서백선은 대표적인 책이었다. 21)

『주서백선』은 1794년 12월에 창덕궁 향원서에서 丁酉字로 간행되었고, 이듬해에는 지방 감영(호남·영남·관서)에서 篆刻본이 간행되었다. 1794년의 활자본은 한자의 종류에 따라 5종(白綿紙, 天紙紙, 完白紙, 不剪紙, 貿白紙) 537권이 인쇄되었고, 이본거지는 내입본 128
건(頒賜次 33건 포함), 서고 250건, 수원 50건, 5곳의 사고 5건, 내각·외규장각·외각·
성균관 각 1건, 개인 55건 등이다. 22) 『주서백선』은 이후에도 지방 유생에게 수시로 배포되
는데, 특히 변각본은 수원부를 포함한 四都와 八道의 鄉校에 고루 배포되었다. 2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수원에 배포된 50건이다. 정조는 1794년 봄에 華城城役 공사가 시
작되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에 『주서백선』을 배포했는데, 다른 관서에는 1건씩 배포
한 책을 50건씩이나 대량으로 배포한 것이 주목된다.

2)『正始文集』(1795, 4)

『正始文集』은 조계문신과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정조의 親試에 제출된 담안지 중에
서 문장의 모범이 되는 것을 뽑아서 편집한 책이다. 24) 정조는 조선후기의 유생의 페판소품
체를 순결한 고통으로 되돌리고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학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추진했다. 정조는 강경책으로 청으로부터 페판소품문과 명·정시대 문집을 수입하는 것
을 금지시키고 페판소품체를 사용하는 당대의 학자들을 문체반정을 통해 경계했다. 또한 유
화책으로는 『주서백선』이나『杜陸士述』과 같이 역대 문장의 모범이 되는 책들을 간행하여
어려 보급하였으며 훈문한 문장을 지은 학자를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정시문정』은 그 결
과로 나온 책이다.

『정시문정』은 1795년 4월에 韓械字로 간행되었는데, 한자의 종류에 따라 4종의 종이(毛
面紙, 紙唐紙, 京造紙, 白紙)에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그 내역은 內入 63건, 西庫 17건, 내
각 3건, 승정원·홍문관·준주관·4곳의 사고·성균관·四學·예조·8도의 서원에 각 1건
등인데, 화성의 경우 수원 향교에 특별히 1건이 배포되었다. 이 경우 역시 지방의 서원에 1
건씩 배포된 것을 제외하면 지방의 향교로는 유일하게 수원 향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25)
『영흥본궁의식』은『永興本宮儀式』에서 올리는 국가제례 의식을 정리한 책이다. 영흥본궁은 태조의 아버지인桓祖의 적립자 태조가 병에 제사를 지낼 때, 조선 초부터 태조와神懿王후의 위패가 빈번하게 부친인神懿王후의 위패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1795년에 태조와桓祖가 태조가 건셋한 8년 후에 480년이 되는 해였는데, 정조는 이를 기념하여桓祖와懿妃의 위패를 추가하고判中樞府事李秉模 등을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게 했던 것이다. 26)

『영흥본궁의식』은 규장각각인徐浩修와徐榮輔가 편찬한 뒤에 정조의 재가를 거쳐 2권 12목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795년 4월 28일에 태조 및 그四祖의 신위를 모시고祭享을 올렸던神懿本宮의 제례 의식을 정리한『神懿本宮儀式』과 함께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간행된 직후『함흥본궁의식』과 함께 두본으로 보내져 보관되었다. 27) 『영흥본궁의식』의 배포 상황을 보면 주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규장각 소장본으로 파악할 때『영흥본궁의식』은 기본적인 배포처(이문란, 춘추관, 황문관, 史庫)에 배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소장처로『華城府』가 밝힌 1책(卷14289)도 포함되어 있다.

4)『奎章全韻』(1796, 8)

『규장전운』은 정조가 규장각의 학자들에게 편찬하도록 한 誼書으로 주로 李德懋가 실무를 보았다. 이 책에서는『三韻通考』계열의 운서를 따라 3성(上聲 去聲 入聲)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入聲을 채 끝에 별도로 나열한 방식에서 벗어나 4성(平聲 去聲 入聲 上聲)을 한꺼번에 표시한 4단식 음서이다. 상·하 2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총 13,345자, 한자로 정서 30권, 상서 29권, 거성 30권, 입성 17권으로 분류되었는데, 정조는 항후 모든 문장의 押韻을 이 책의 의례에 따르도록 했다. 28)

따라서『규장전운』은 정조대의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되었다.『규장전운』은 4종의 종이(營壯紙, 巻冊紙, 完壯紙, 白紙)에 글자 크기에 따라 大・小本으로 구분되어 총 1,483권(대본 1,189권, 소본 294권)이 인쇄되었고, 전국 330 군현의 향교와 262곳의 사

26)『永興本宮儀式』卷首, 「敘體神懿永興本宮儀式」.
1795년神懿本宮에 올린 제사에 대해서는『聞行乙卯整理儀軌』에도 기록하고 있다. (附編3, 「神懿本宮敘體」)
27)『正祖實錄』권42, 正祖 19년 4월 戊申(28일).
28)『日省錄』正祖 20년 8월 11일.
"此後, 公私皆肀, 準此敘體義式令事, 分付京外掌試之司."
역서원에 배포되었다. 또한『규장전운』은 원본이 목판본이라 얼마든지 추가 인쇄가 가능했고, 이후 민간에서 제작한 펑본도 등장하여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화성의 경우『규장전운』은 수원부에 볼록 교대, 사택서원의핵, 허도서원의 핵, 메로서원의 핵, 흥복서원의 핵, 화성서원의 핵 등이 각 1건이 배포되었다. 4도 중에서 나머지 3도(개성, 강화, 광주)와 전국 8도의 감경에 배포된 것이 인쇄된 본 1건 혹은 여기에 백지 소본 1건이 추가되는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화성을 우대용을 알 수 있다. 29)

5)『총수무원목습해』(1796.12)

『총수무원목습해』는『무원목』을 증보하여 만든 범의학서인『총수무원목』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무원목』은 원래 元나라 王與이 편찬한 책으로 세종대에 崔政亨 등이 이를 주석한『신주무원목』을 간행하여 실용적인 관료를 위한 기본서로 활용했지만『무원목』에는 중국의 방언이 많이 섞여 있고 중국어에서 간결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조는 堡宅字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했고, 그의 아들 具允明이 계승하여 완성한 것이『총수무원목』이었다. 정조는 이 책을 형조판서 徐有鱗과 律官 金就夏 등이 함께 번역하도록 하고 교사관에서 활자로 간행 보급했다. 30)

『총수무원목습해』는 기본적인 범의학 외에 형률을 다루는 기관인 한성부·의금부·형조, 4도의 유수령과 8도의 감경에 1건씩 배포됨에 따라 화성에도 1건이 배포되었다. 31)

6)『원행乙卯整理儀軌』(1797.3)

『원행율요정리의궤』는 1795년 음2월에 있었던 7박 8일간의 화성행사를 정리한 의궤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행사는 해경궁의 회갑탄사를 중심으로 했지만 정조가 제위기간 중에 이룩했던 위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친위세력과 백성들의 충성을 결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조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궤의 편찬을 서둘렀다. 행사가 끝난 직후인 음2월 27일, 정조는 整理儀軌을 설치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이튿날 鑄字所에 의궤 청을 설치하여 편찬이 시작되었다.『원행율요정리의궤』의 편찬은 정조의 비상한 관심과 독려 속에 진행되었고, 1795년 8월 15일에 교정이 완료되어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궤가 종종으로 인쇄된 것은 1797년 3월이었으며, 32) 인쇄에는 1795년에『원행율요정리

29)『통감』
30)『弘齋全書』권184, 『群書標記』, 『增修無冤錄』2권, 『説解』2권(1796).
31)『화성서원令』20년 12월 8일.
32)『원행乙卯整理儀軌』목, 『座目』 권1, 『序敘』.
의례의 인쇄를 위해 미리 만들어 두었던 정리한 분량을 사용했다.

『원행을묘경린의궤』는 행사 당사자였던 해경군에게 1건, 정조에게 31건이 올려졌고, 서
서에는 10건이 보관되었으며, 기관으로는 화성행궁, 내각, 외규장각, 5곳의 서기, 정리소, 중
정원, 홍문관, 시강원, 비변사, 장수림, 승려회, 화성부, 경사동, 서홍현, 과천현 등에 각 1건씩 배포되었다. 여기서 화
성과 관련이 있는 곳은 화성행궁, 경사동, 화성부인데, 3곳 모두 1795년의 행사와 직접 관
련이 있는 기관이었다. 현재 규가각에는 ‘사천행궁’이라고 소장처를 밝힌 『원행을묘경린의
궤』가 2점(규14522, 규14529) 소장되어 있다.

7) 『향례합편』(1797. 6)

『향례합편』은 정조가 일반 백성의 교화를 위해 편찬한 책이다. 1795년에 화성에서 모집
인 해경궁을 모시고 성대한 화갑연을 거행한 정조는 군주와 백성이 함께 효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양로연을 베풀고 효행자를 표창했다. 그러나 정조는 이
런 일과성 행사를 통해 당대의 풍속을 일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백성의 교화를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점감했다. 그는 백성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함으로써
향원의 상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향원 질서의 안정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34)

향원을 위해 백성의 교화를 위한 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향례합편』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간
행된 책이었다. 정조는 『삼성일록』과 『무인행실곳』을 보급하여 백성들에게 유행의 기본 탁
복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향례합편』은 이 두 책을 충분히 의연 다음에 학습하도록 조
직했다.

백성의 교화를 위한 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향례합편』 역시 많은 수가 배포되었다. 『향례
합편』은 1797년 6월 2일에 丁酉년로 간행되었으며, 이후 영남·호남·판서감영에서 적도본
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환자본 『향례합편』은 특히 지방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4도 유수영
과 8도의 감영을 비롯하여 전국 330 주현의 화교, 100곳의 서원에도 일일이 배포되었다.
여기서 화사는 유수영 이외에 화성행궁 5건, 헝구사도 1건이 배포되었고, 화성의 52개
면에 각 1건씩 배포되었다. 35) 특히 화성의 52개 면에 일일이 1건씩 배포된 것은 극히 이례
적인 일이었다. 『향례합편』이 화성에 많이 보급된 것은 바로 이 책의 간행 배경이 되었던
해경궁의 회찬찬거가 바로 보수적인 기관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이었다.

33) 원복. 권1, 「일행」(丁巳 3월 24일).
34) 「향례합편」(全集, 「향례합편」과『무인행실곳』의 변호시식시례전행차조.
35) 「일행」. 정조. 1797년 6월 2일.
8) 『五倫行實圖』(1797. 7)

『오륜행실도』는 앞서 본 『항례합편』과 함께 정조가 백성의 교화를 위해 편찬한 책이다. 『오륜행실도』는 중국과 조선에서 오륜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150인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를 합하여 제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는 해당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노래한 한문 원문과 함께 한글 연해, 원문의 내용을 요약 한 삼화가 들어있어 글을 모르는 백성이라도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36) 『오륜행실도』의 삼화는 당대의 화가인 김弘道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림으로 평가받는다.

『오륜행실도』 역시 『항례합편』과 마찬가지로 지방에 널리 배포되었으나 4도의 유수영과 8도의 감영, 330수의 항교에 각 1권씩 배포되었다. 화성에는 10년 1월에 화성행궁에 10건이 배포되었는데, 화성행궁을 특별히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37)

9) 『春秋』(1798. 10)

1798년 (정조 22) 10월에 규정각에서는 『춘추』를 간행하여 올렸다. 이는 경서의 정본을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3종의 종이(壯紙, 白紙, 行紙)에 인쇄되어 전국 으로 배포되었다. 보급처에는 西條 기 10권(壯紙), 화성행궁 2권(壯紙 1, 別白紙 1), 외규장 각 1권(別白紙), 내각 1권(壯紙), 외각 1권(白紙), 홍문관 1권(壯紙), 춘추관 1권(白紙), 춘방 1권(壯紙)이 있었고, 전국 15개 서원(紹賢 玉山 道峯 華陽 東洛 筆覇 陶山 道東 道嚴 潘溪 興嚴 坡山 潘溪 義嚴 德川)에도 각 1권(白紙)씩 배포되었다. 38) 여기서 화성행궁은 문헌의 기본적인 배포처로 속했다.

10) 『雅誦』(1799. 10)

『아송』은 주자의 문질인『주자대전』에 실린 시문 중에서 詩教에 도움이 되는 글을 뽑아서 丁酉년로 간행한 책이다. 정조는 주자서를 모범적인 문장서로 파악하고 이를 선별하여 편집한 문헌들을 편찬했는데, 『아송』은 359수, 文 52수를 비롯하여 총 415수의 시문을 편집한 것이다.

36) 『弘齋全集』권184, 群書標記, 命撰, 『五倫行實圖』5권 (1797).
37) 「日省錄」正祖 21년 7월 20일.
38) 「직책」正祖 22년 10월 29일.
『아송』은 1799년 9월 25일에 완간되고 10월 3일에 배포되었는데, 정조는 이 책을 국왕의 경연과 세자와 서원에서 읽도록 했으며, 성균관의 종경전에 소장해 두고 유생들이 달마다 개정하는 책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아송』은 기본적인 배포처 이외에도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과 8건, 서원을 주관하는 승집에 6건이 배포되었고, 성균관에는 종경전에 1건을 배포한 이외에 月세에 사용할 5건을 추가로 배포했다. 또한 전국 16곳의 서원(道東 漢溪 筆厳 謝峯 陶山 玉山 資賢 坡山 達巖 華陽 興巖 潘溪 牛渚 義巖 德川 東洛)에도 각 1건씩 배포되었다. 화성의 경우에는 행궁에 3건이 배포되었다. ④③

11)『제중심편』(1799, 12)

『제중심편』은 정조대의 醫官이었던 建明규이『東醫寶鑑』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책이다. 정조는 세자 시절에 10여 년간 영조의 약 시술을 들면서 診脈에 대한 비결과 음료에 관한 이론을 연구했고,『동의보감』에 상세했지만 글이 번거롭고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보완하여『壽民妙訣』9권을 간행한 바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내의원 의원 강영길에게 명하여 당시에 전해진 여러 처방의 요점을 취하고 質問모를 첨부한『제중심편』을 편찬하게 했다. 이 책은『동의보감』이후의 발전된 의학을 도입하였으며, 성장하는 추세에 있던 민간 의약업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처방전 모음집을 제공했다. ④④

『제중심편』은 鑄字소에서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전국으로 보급되었으며, 화성에는 화성행궁에 1건, 유수령에 1건이 배포되었다. ④③

12)『杜陸千選』(1799, 12)

『杜陸千選』은 정조가 모범적인 문장가로 평가하는 杜甫와 陸游의 律詩 중에서 각 500수씩 1,000수를 뽑아서 편집한 책이다. 정조는 詩로는 정치 교화의 성과와 직접되며 당대의 시는 날로 측축하고 습담 음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옛날의 순박한 시로 되돌리기 위해 주자의 시를 뽑은『雅誦』을 편찬 보급한 후, 주자가 당나라 문장가 가운데 유일하게 창작했던 杜甫와 和平하고 粹美하여 중원의 태평 시대의 기상이 있다고 평한『陸游의 시를 선택하여『杜陸千選』과『陸陸千選』을 편찬한 바 있었다. ④④ 1798년에 편찬된『杜

39)『正祖實錄』卷52, 正祖 23년 10월 25일, 40)『日省録』正祖 23년 10월 3일.
41)『正祖實錄』卷52, 正祖 23년 12월 11일.
42)金鍾, 2000,『「동의보감」의 조선파학적, 제중심편』『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pp.284~289.
43)『日省録』正祖 23년 12월 11일.
律分韻은 두보의 음시 777수를, 『陸律分韻』은 육유의 음시 4,877수를 뽑아서 수록했는데, 『六部韻集』은 이 두 책을 합하고 내용을 대폭 요약하여 편찬한 책이었다.

『六部韻集』은 1799년 12월에 陰字所에서 丁酉라로 간행되어 室合樓 1건, 西廂 50건, 내각・홍문관・春坊 각 2건, 외귀장각・5곳의 사고・外閣에 각 1건, 鎭經閣 2건, 전국의 서원 14곳에 각 1건씩 배포되었다. 화성의 경우 화성행궁에 3건이 배포되었는데, 화성행궁이 기본적인 배포처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陸律分韻』 2절(呉938, 戲2226) 소장되어 있다.

13) 『四部手圈』 (1801. 7)

『四部手圈』은 정조가 經・史・子・集의 핵심 구절을 뽑아서 정리한 책이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경서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서 심경을 간행했다. 또한 그는 규장각의 초계문신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經史講義』를 통하여 경학 연구의 심도를 더해갔다. 경전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정조는 다시 『儀禮』, 『周禮』, 『禮記』, 『史記』, 『漢書』, 『後漢書』, 公의 五子 문집, 陸摠의 奏議, 坂・gó 8가의 문집으로 관심 범위를 넓혀갔는데, 그 주요 내용을 뽑아서 편찬한 책이 『四部手圈』이다.

『四部手圈』은 1798년 (정조 22) 11월 30일에 頭사본이 완성되고, 1801년 (순조 1)에 목판본으로 인쇄되었다. 목판본은 인쇄된 적후 규장각의 주함루, 華寧殿, 5곳의 史庫, 내각, 홍문관, 화성행궁에 배포되었고, 1802년에는 劝講에 참여한 대신 126인에게 1건씩 배포되기도 했다. 여기서 화성과 관련된 곳으로는 華寧殿과 行宮이 있다. 화경전은 1801년 5월에 정조의 影帳을 봉안함으로써 影帳이 되었는데, 그 직후부터 문헌의 배포처가 되었다.

14) 『華城城役儀軌』 (1801. 9)

『華城城役儀軌』는 1794년 1월부터 1796년 8월까지 진행된 화성성곽의 축조 공사에 관한 종합 보고서이다. 정조는 화성의 축조가 규모가 큰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했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책을 편찬하도록 했다. 『華城城役儀軌』는 화성이 완공된 직후인 1796년 (정조 20) 9월에 수원유수 趙心泰

44) 『正祖實錄』 권52, 正祖 23년 12월 辛亥(28일).
45) 『日省録』 正祖 23년 12월 28일.
46) 『純祖實錄』 권3, 純祖 원년 7월 乙卯(19일).
47) 『實錄』 권4, 純祖 2년 5월 丁酉(28일).
48) 『實錄』 권3, 純祖 2년 5월 丁酉(28일).
의 주관하에 편찬이 시작되어 그 해 11월에 초고가 일단 완성되었다. 50) 그러나 의례의 간행은 정조의 사후로 미뤄졌고, 1801년 7월에 司僕寺正 洪元燮의 주관하에 인쇄 작업이 시작되어 그 해 9월에 규정각 각각인 李晚秀·沈象奎의 주도하에 정 리자로 간행되었다. 51)

『화성성역의례』의 배포처에 대해서는 필사본의 원고가 완성된 시점에서 정조가 이를 간행하여 內次 3권, 3곳의 史庫·內閣·聖教院·비변사·병조·壯勇內營·壯勇外營에 각 1권, 총리대신 蔡濟源을 비롯하여 각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 1권씩 배포하였고 명령한 바 있다. 52) 현재 『화성성역의례』의 배포 상황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화성행궁·화령전 등에 다수가 배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규정각 소장본 중에는 ‘華城行宮’으로 소장처를 밝힌 1 권(경14590)이 있다.

15)『弘齋全書』·『莊獻世子刺製』(1814. 3)

정조의 御製集인 『홍채전서』와 사도세자의 睿製集인 『장현세자예제』(본문에는 『凌虚閣漫稿』로 나음)는 동시에 간행되었다. 순조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선왕인 정조의 어제를 종합하여 간행하려는 계획을 가졌고, 그 결과 1801년 12월에 규정각에서 필사본 『홍채전서』 184권을 정리하여 올렸다. 『홍채전서』의 간행은 1813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14년 3월 22일에 완료되었다. 53)

『홍채전서』와 함께 『장현세자예제』도 간행되었다. 『장현세자예제』는 1803년에 편집이 끝나 7권의 필사본으로 순조에게 옮겨진 바 있었는데, 54) 1814년 『홍채전서』와 함께 간행 배포되었다. 55) 장현세자의 손자이자 정조의 아들인 순조는 정조의 어제를 간행하면서 장현세자의 예제까지 함께 간행함으로써 정조가 미치 끝내지 못했던 과업을 마무리했다.

『홍채전서』와 『장현세자예제』는 정리자로 인쇄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整理字는 「일행율묘 정리의례」의 인쇄를 위해 만든 화자인데, 순조는 1805년 정조가 帝王樂 교과서로 편찬한 『대학유의』를 간행할 때에도 이 화자를 사용했다. 정리자는 장조와 인연이 깊은 화자였던 것이다.

『홍채전서』 100책과 『장현세자예제』 3책은 30권씩 인쇄되어 규정각의 奉謹堂·宙合樓,
4. 華城의 문헌 보관처

지금까지 1794년에서 1814년까지 규장각에서 간행된 15종의 문헌이 화성에 배포된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화성에 배포된 문헌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華城行宮

앞서 〈표 1〉에서 보았듯이 화성행궁의 건물들은 1789년에서 1790년 사이에 기본 건물이 세워졌고, 華城이 축성된 1794년~1796년에 부속 건물들이 채워진 또는 신축되어 최종 완성되었다. 행궁의 건물들은 행궁의 正宮에 해당하며 정조의 이전인 ‘壮南軒’ ‘華城行宮’ 현판이 걸려 있었다. 奉壽堂, 56) 봉수당 남쪽의 長樂堂, 행궁의 內堂에 해당하는 福內堂을 비롯하여 維室宅, 洛南軒, 老來堂, 得中亭, 未老閑亭 등이 있었다.

화성행궁은 건축이 한창 진행된 1794년 12월에 『주서백신』을 하사받은 것에서 시작하여 정조대에 건립된 대부분의 문헌이 배포된 기본 배포처에 속했다. 화성행궁에는 특히 『朱書百選』 50권, 『白紵』 20권, 『天鶴紙』 10권, 不剪紙 10권, 質白紙 10권, 『圓行乙卯整理儀軌』 2권, 『鄭禮合編』 5권, 『五倫行賞圖』 10권, 『春秋』 2권, 『雅誦』 3권, 『濟衆新編』 1권, 『杜陵千選』 3권 등 한계아래 여러 절의 문헌이 배포되었는데, 이는 정조에게 직접 읽어진 內入本이나 국가에서 편찬된 문헌의 일정 분량을 반드시 보관했던 규장각의 西庫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문헌의 문헌이 배포된 것이었다.

56) 『純祖實錄』 권17, 純祖 14년 4월 甲申(23일).
57) 『純祖實錄』 권17, 純祖 14년 4월 庚寅(29일).
58) 『華城城役儀軌』 부附1, 行宮, 「奉壽堂行閣」.

“上之十三年己酉秋, 移建水原府治於八達山之下, 以其府衙, 仍作行宮, 而正堂有御書扁額曰 ‘壯南軒’, 又曰 ‘華城行宮’. 常時則使府使坐衙, 堂之制, 七樁十一間, 坐西向卯. 乙卯進閫時, 又命扁曰 ‘奉壽堂’.”
2) 华城留守營

원래 수원부의 육지는 화산 아래의 龍伏面에 있었다. 그러나 1789년에 현통원이 화산으로 옮겨지면서 수원부의 육지는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게 되었고, 1793년에는 유수영으로 승격되면서 장정원영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가 사망한 직후인 1801년(순조 1)에 백。
勇外활이 해파되면서 유수영이 완장하던 鐵管 12개 옆(부평, 인천, 남양, 통진, 진포, 안산, 양천, 진위, 용인, 안성, 양성, 금천)이 南陽으로 이적되었고, 1895년(고종 32)에는 화성유수영이 폐지되고 郡이 되었다. 59) 이로 불 때 화성유수영은 정조대 후반에 그 규모가 가장 커졌으며, 19세기 이후로는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성유수영의 건물은 행궁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 일치했다. 가령 펑양현은 1795년에 허경공 홍세의 회담장소를 마련 건물이었지만 평소에는 화성유수가 정부를 보는 곳이었고, 廣與宅은 화성유수가 거처하던 건물이었다. 말하자면 화성행궁은 국왕이 현통원의 참배를 위해 행차했을 때에는 行宮으로 사용되지만, 평소에는 화성유수가 거처하며 정무를 관할하던 유수영으로 기능했다.

화성유수영은 開城・江華・廣州・華城으로 구성되는 4도의 하나로서 4도의 유수영과 8도의 감영에 배포되는 정조대의 문헌이 모두 배포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곳에는 『永興本宮儀式』『奎章全集』『增修無逸錄註解』『郷禮合編』『五倫行實圖』『濟衆新編』 등의 배포되었는데, 문헌의 품절과 배포 부수에서 다른 기관보다 우대를 받았다. 특히 혜경공의 회담장소를 배경으로 한『한제합면』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성 소속 52개면에 모두 1권씩 배포되었다.

3) 華寕殿

화령전은 정조의 御賞을 모신 影殿으로 화성행궁의 복벽에 있었다. 정조의 御賞이 면 처음 화성에 모셔진 것은 1792년 1월이었다. 정조는 10년마다 한 번씩 여진을 그렸던 영조대의 故事를 따라 자신의 여진을 제작하여 규장각 府合樓, 경모궁 望廰, 현통원 賛室에 각각 1본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주합부는 원래 국왕의 여진을 보관하는 공식 장소였으므로 그곳에 1본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경모궁 망묘루와 현통원 재실에 자신의 여진을 걸어 둔 것은 항상 부친의 사망과 무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였다. 60)

59) 『永興府邑誌』『建置沿革』.
60) 『正祖實錄附錄』『行狀』.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자 규장각 추합부에 봉안했던 정조의 御寢大本과 현릉원 재실에 있던 御寢小本을 합하여 화성행궁의 維興宅으로 이전했고, 1801년 5월 순조가 화령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를 화령전에 모셨다. 화령전에는 정조의 어진 大本을 절어 두고 小本은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했다. 61)

화령전은 정전인 雲漢閣에서 內三門, 外三門이 일직선상에 있으며, 정면 5칸 쪽면 4칸인 화령전의 전면에 월호가 있고 흑색의 方博을 걸었다고 한다. 화령전의 祭享은 정조의 탄신 일과 諫享일에 있었으며, 국왕의 親祭가 아니면 화팀유수가 추관했다. 62) 화령전의 제향은 1920년 정조의 어진이 창덕궁으로 옮겨지면서 중지되었다.

화령전은 정조 어진이 봉안된 지 2개월 후인 1801년 7월에 四部手圀이 배포됨으로써 바로 문헌 배포처가 되었다. 또한 1814년에 간행된 『弘掖全書』『莊獻世子睿製』도 화령전에 배포되었는데, 이 중이 바로 정조 생전 내내 현릉원을 지었던 정조의 御寢이 봉안된 影殿이었기 때문이다.

4) 鄉校

수원부와 함께 花山 아래에 있었던 항교는 1789년 육지의 이전과 함께 花山 挹상 또는 옮겨졌으며, 1795년에는 정조의 特敕에 의해 중건되었다. 또한 1795년 정조가 능행할 때와 1810년 순조가 능행할 때에는 국왕이 직접 이곳에 들러 大成殿에 참배했다. 63) 항교의 건물에는 大成殿 東西廬 內神門 典祀廳 明倫堂 東西齋 外神門 등이 있었으며, 1871년에 초평면에 있던 關里祠가 철거되자 커리사에 봉안했던 공자의 영정을 항교의 대성전으로 옮겨서 봉안했다. 64)

화성항교는 『朱書百選』『奎章全圖』『鄕禮合編』『五倫行賞圖』 등 전국의 항교에 배포된 서적이 배포되었고, 『正始文集』의 경우에는 전국 항교 중에서 유일하게 수원항교에 배포되었 다. 또한 정조는 1795년 해경궁 회갑진차를 화성행궁에서 거행할 때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하여 새로 인쇄한 四書 三經을 유생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65)
5) 書院

화성에는 明晉書院과 梅谷書院이 있었는데, 두 곳 모두 賜額書院이었다. 定國書院은 澤渚 趙翼을 主享으로 하고 그 아들인 趙復陽과 손자인 趙持謙을 配享한 서원으로, 1660년에 창건되어 1669년에 사액을 받았고 1868년에 훼철되었다. 역곡서원은 宋時烈만 主享으로 한 서원으로 송시열이 이곳을 자주 왕래한 연고로 1694년에 창건되어 이듬해에 사액을 받았고 1871년에 훼철되었다. ⑥)

정조대의 문헌 가운데 『奎章全體』은 두 서원에, 『鄉禮合編』은 역곡서원에만 페포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서원에 비해 우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⑥)

6) 龍珠寺

용주시는 수원부의 남쪽에 있는 龍伏面(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花山西에 있다. 854년 (문성왕 16)에 廟님이 창건하였으며, 1789년에 정조가 현릉원을 화산으로 이전한 후 이를 수호하기 위해 1790년에 중창했다. ⑦)

1796년에 정조는 『父母恩重經鑒解』를 간행하고 그 판을 용주시에 보관하게 했다. 부모운 중경판은 정조대의 문헌은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천명이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인 『부모운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고 그에 대한 보온을 역설한 불경이다. 정조는 불교가 비록 이단이지만 이 책은 효를 주제로 하고 본문에는 그림 이 있어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부모운중경』을 간행 보급했다. ⑧) 인쇄가 완료된 후 정조는 그 판을 현릉원의 陵寺인 용주시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부친에 대한 자신 의 지극한 효성을 표시하고 부친의 명복을 빕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용주시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세 종류 85매이다. 銅板 7매는 異相圖, 石板 24매는 經文, 목판본 54매는 경문과 연해, 반상도로 되어 있다. 이중 목판 54매는 1796년에 제작한 것이고, 동판과 석판은 1802년(순조 2)에 제작한 것이다. 이 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⑨)

⑥) 『水原府志』「祠院」; 『水原府志』(卷17364)「祠院」.
⑦) 『水原府志』「寺剎」.
⑧) 『弘齋全書』「日得錄・訓語」.
⑨) 박경하, 1997, 『水原市史・中』, p.96.
5. 문헌 배포의 의미

지금까지 정조대의 문헌 가운데 화성에 배포된 것과 그 문헌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조가 평판한 아례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이후에는 많은 문헌을 이곳에 배포하였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화성은 문헌 배포에 있어 상당한 우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화성에 이처럼 다양한 문헌들이 배포된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화성과 사도세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정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까지도 반대 세력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형식적으로는 사도세자의 형제 도숙(李章世子)의 조카로 국왕이 되었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이므로 ‘죄인의 자식’이란 명에는 늘 따라다녔다. 따라서 정조는 왕조의 중흥은 자신의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재림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창덕궁 입궁에 화성문을 설치하고 사도세자의 영위를 모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매달 화성문을 방문하면서 사전 정치적업을 해왔던 정조가 1789년에 천하 명당지사라는 사대사중에 현풍을 조성한 것은 사도세자의 복권 작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이후 수원부의 이전, 화성유수영 및 장덕원의 설치, 화성성곽의 건설, 화성공의 회감진지 등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정조가 자신의 정통성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화성이 ‘사도세자의 재림을 호위하고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고, 화성의 육성은 바로 사도세자의 복권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근거로 하려는 정조의 구상과 연관되어 있었다. 정조는 규정각에서 진행되는 문헌들을 꾸준히 화성에 배포하고 문헌 배포에 있어 화성을 우대함으로써, 문헌에 화성과 현풍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화성과 정조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조는 화성공이 철순이 되고 왕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아들 순조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현풍이 가까이에 있는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을 가졌다. 71) 정조가 은퇴하려는 목적은 사도세
자의 완전한 복원에 있었다. 정조는 자신이 국왕으로 있으면서 사도세자를 완전하게 되찾기 키고자 했지만, 조상 조상의 약속 때문에 이를 실천할 수가 없었다. 사도세자의 완전한 복권은 곧 영조의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영조의 입장에서 큰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정조가 국왕에 즉위한 날 작성한 행문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조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72)

아, 파인은 혼란세기의 아들이다. 대왕께서서 종통을 중요하게 여기시여 나에게 임상세손의 후사를 될 것을 명령하셨으니, 내가 (내가) 예전에 산대왕께 올린 상소를 보면 ‘근본을 듯고 하지 않는바(不貳本)’는 나의 뜻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염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사 또한 빠지 않을 수 없다. 사도세자에게 올리는

축하의 전사는 대사로서 제사를내는 봉사를 따라야 하며, 대사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악기중에 대해서는 왕복에서 올리는 황물은 바칠 것들이 있어야 하겠으나, 대사와 같을 수는 없다.StringBuilder 대사에 의하여 의례를 개념하여 아뢰게 하라.

정조는 국왕과 세자의 위치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올례와 친부모에게 느끼는 인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왕위에서 물러나 하왕으로서 밑에서 활동하고, 사도세자의 추존은 자신의 부투를 받은 신왕에 의해 추진한다면, 이는 영조에 대한 명분과 사도세자에 대한 실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1804년의 옥죄 구상은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행궁을 건설하면서 노비절 6존여의 골졸 인물을 지었는데 이는 바로 자신의 옥죄를 전제로 하여 불인 건물 이름이었다. 그렇지만 정조는 1800

년에 사망함으로써 옥죄된 이후에 사도세자를 추존하였다. 이는 정조의 구상은 하왕 1899년(광무 3) 8월에 장헌세자를 ‘장튼’으로 추존함으로써, 사도세자에 의하여 발생한 인

72) 「弘齋全書」권26, 納音, 「即昨日納音」.
73) 「高宗實錄」권39, 高宗 36년 8월 3일.

"특정고종의조선조약…… 이란 혜성중에자 아담에 있다, '정림대, 염산산, 阿子生, 若至甲子年, 若當, 可以傳位而傳位後, 子奉官, 費御承傳, 然其書簡末行之典, 負有獲仲之直矣, 子則, 負承英廟下敎, 敢不敢違, 然備備書, 亦一義理也, 今日諸臣, 御從義理, 不敢議, 亦義理也, 而言之, 且親躬書簡末行之典, 持有待於鑒定而諸, 可喜誕載之大顯於敎’ 咸陽宮의, 高宗天章 즉위 후, 君尊至重, 故故多端, 鄭重趙旭, 式至于今, 擡旗大同之備, 無由殤矣, 此義理, 建天地而不悖, 殺百

世而不怒, 故收義當於其間矣."
연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화성을 학술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려는 정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4도로 둘러싸인 도시권은 인구와 경제력이 꾸준히 성장하는 지역이었다. 수도권은 한성부와 4도 유수영 등 국가의 상급행정기관이 집중되고,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영과 침략들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었으며, 한강의 수로가 동해와 전국으로 이어지는 X자형 간선도로망이 모여드는 교통 중심지였다. 정조는 'פט'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도권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김정과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는 등 수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74) 삼남 지역에서 서울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화성은 수도권 남쪽의 중심 지역으로 정조의 신도시 육성 계획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도시로 성장했다.

정조가 4도의 유수영에 많은 문헌을 배포한 것은 수도권의 거점 지역을 학술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문헌 배포를 미루면 할 때 정조는 화성을 다른 탑승안이나 수확보다 적절히 우대하였으며, 국가의 학문을 중시하는 중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규장각·총문관·춘추관·성균관과 동등한 기관으로 다루었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부친의 묘소가 있고 장자 자신이 은퇴하여 마을게 될 화성을 학술 문화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정조의 화성 경영과 화성에 배포된 문헌에 관한 살펴보았다.

정조는 1789년 화성 아해에 현황을 조성하고 화성을 건설한 이래 화성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1790년대에 정조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조치들에 의해 화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농업과 상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성장하였다.

정조가 화성을 육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세자의 귀경을 수호하고 화성행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삼남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 이곳에 성곽을 놓고, 5천명을 상호히 전투 방정을 거느리고 장면을 둔 것은 화성이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조가 화성에 문헌을 집중적으로 배포한 것은 화성이 가진 정치도시, 경제도시,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에다가 새롭게 학술 문화도시라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의 사

74) 김문철, 1997, '18세기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韓國學報』88, pp.56~64.
役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1794년부터 생애의 말까지 규정각에서 편찬되는 문헌들을 꾸준히 배포했다. 또한 순조대에 들어와서도 정조대에 편찬이 끝났거나 정조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책들은 계속해서 배포되었다. 필자가 본고에서 소개한 15중의 문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책들이 배포되었을 것이다. 또한 배포된 문헌의 종류와 양을 기준으로 할 때 화성은 학문을 환경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화성에 배포된 문헌들은 주로 화성행궁과 유수영에 보관되었고, 정조의 사후에는 정조의 영위인 후궁영이 주요 배포처에 포함되었다. 화성행궁과 유수영에 문헌이 집중된 것은 이곳이 바로 정조가 유배 이후 머물러서 직접 되었던 장소가기 때문이다. 정조는 1804년에 왕위를 순조에게 물려주고 화성행궁에 살면서 자신이 구상한 개혁정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 중에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두고 정책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하게 복건시킨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정조는 자신이 온순한 이후에 붙여 왔던 화성행궁에 비추고 있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화공전에는 특별히『弘運全書』과『莊獻世子韋雋』가 배포되었는데, 이는 정조와 사도세자를 연결시켜 주었던 정조의 뜻으로 보관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정조가 왕대한 끝을 가지고 조성했던 화성성곽과 화성행궁은 세월이 흐르면서 희락의 길로 들어갔다. 화성행궁은 왕실의 유산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일제시대에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해방 후에는 설곡 건물만 남겨온 것이다. 성곽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으나 6.25동란을 겪자면서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1975년 정부에서는 화성 성곽의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형을 회복했다. 여기에는 화성 성곽의 공사보고서인『華城城役儀軌』가 적극 활용되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1994년부터 화성행궁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원의료원이 빠져나간 자리에 펑페루르를 비롯한 주요 건물을 상당수 복원되었다. 화성성곽과 행궁의 복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화성의 복원은 성곽과 건물의 복원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조가 구상한 학술 문화의 도시, 상공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자립도시, 휴식과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